



# ‘음바펠레’

### 프랑스 음바페 2골 1도움 ... 3-1 폴란드 꺾고 8강 24세 이전 월드컵 9골 ‘축구 황제’ 펠레 기록 넘어

‘디펜딩 챔피언’ 프랑스의 간판 공격수 킬리안 음바페(24·파리 생제르맹)가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또 한 번 폭발력을 과시했다. 음바페는 5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알 수마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폴란드와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에서 2골 1도움을 기록, 프랑스의 세 골에 모두 관여하며 3-1 승리를 이끌었다. 그는 전반 44분 올리비에 지루(AC 밀란)의 선제골을 도운 데 이어 후반 29분과 후반 46분에는 직접 두 골을 넣었다. 음바페의 맹활약을 앞세운 프랑스는 거침없이 8강에 진출, 월드컵 2연패를 향한 질주를 이어갔다. 앞서 조별리그에서 3골을 기록한 음바페는 이번 대회에서 총 5골을 넣으면서 대회 득점 단독 1위로 올라섰다. 지루와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 마커스 래시퍼드(잉글랜드), 알바로 모라타(스페인), 에네르 발렌시아(아과도르), 코디 학포(네덜란드·이상 3골)와 격차를 2골 차로 벌렸다. 더불어 음바페는 이날로 ‘축구황제’ 펠레(브라질)의 기록까지 넘어섰다. 이달 20일에 24번째 생일을 맞는 음바페는 만 24세가 되기 전 월드컵에서 가장 많은 골(9골)을 넣은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대회 전까지는 ‘축구 황제’ 펠레(브라질)가 7골로 이 부문 1위였다. 음바페는 첫 월드컵이던 2018년 러시아 대회에선 4골을 넣으며 대회 ‘영플레이어상’을 거머쥘 바 있다. 기량이 더욱 성장한 그는 과거의 펠레와 4년 전의 자신을 넘어서며 득점 행진을 펼치는 중이다. 음바페는 이날 폴란드의 집중 마크에도 왼쪽 측면에서 스피드를 활용한 돌파로 상대를 위협했다.

전반에는 한 차례 측면에서 ‘폭풍 질주’를 했는데, 경기장 전광판에 찍힌 그의 속도는 시속 35km였다. 경기 최우수선수(POTM·Player of the match)로도 선정된 음바페는 상대 감독의 극찬까지 받았다. 체스와프 미흐니에비치 폴란드 감독은 경기 뒤 “음바페는 환상적인 선수”라며 “그를 응원한다. 그는 ‘스타’이고 메시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포르투갈),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폴란드)의 뒤를 이을 선수”라며 정찬을 아끼지 않았다. ‘젊은 피’ 음바페와 함께 프랑스에선 36세의 ‘베테랑’ 지루도 제 몫을 했다. 지루는 음바페의 패스를 날렵한 왼발 슈팅으로 연결해 자신의 A매치 117번째 경기에서 52번째 골을 넣었다. 이로써 지루는 ‘전설’ 티에리 앙리(51골)를 넘어 프랑스 A매치 최다 골 신기록을 썼다. 프랑스는 이번 월드컵을 앞두고 폴 포그바(유벤투스), 은골로 캉테(첼시), 크리스토퍼 은쿰쿠(라이프치히) 등이 부상으로 합류하지 못하는 악재를 맞았다. 여기에 주축 공격수이자 올해 발롱도르 수상자인 카림 벤제마(레알 마드리드)가 허벅지 부상으로 출전을 포기했고, 측면 수비수 루카스 에르난데스도 오른쪽 전방십자인대를 다쳐 중도에 하차했다. 선수들의 줄부상에 2연패 도전에 악재가 드리우는 듯했지만, 음바페와 지루의 활약 덕에 프랑스는 공백을 메우고 8강까지 무사히 안착했다. 역대 월드컵 2연패를 이룬 나라는 이탈리아(1934년·1938년), 브라질(1958년·1962년)뿐이다. 이 기록을 이으려면 프랑스는 이제 세 번의 승리가 더 필요하다. /연합뉴스



킬리안 음바페

## 16강 탈락한 호주 선수들 경기 후 메시와 사진 찍어

아르헨티나에 져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16강에서 탈락한 호주의 몇몇 선수들이 경기 후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와 사진을 찍어 논란이다. 호주 매체 뉴스닷컴은 5일 “월드컵 16강에서 탈락한 호주 선수 일부가 경기 후 메시에게 ‘팬심’을 내보여 비난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호주는 4일 카타르 알라이안에서 열린 아르헨티나와 16강전에서 1-2로 졌다. 이 경기에서는 메시가 선제골을 터뜨리기도 했다. 그런데 경기가 끝난 뒤 호주의 키아누 베커스, 조엘 킹, 마르코 킬리오 등 몇몇 선수들이 메시에게 다가가 사진을 함께 찍자고 했다는 것이다. 또 이들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메시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어릴 때부터 우상으로 여겨온 세계 최고의 선수 메시를 만나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는 소감도 게시했다. 축구 선수들은 경기에서는 치열하게 싸우다가도 경기가 끝나면 서로 유니폼을 바꿔 입는 등 양손을 맞잡는 것이 당연하지만 패배로 인한 탈락의 아픔이 컸던 호주 선수들에게는 이 장면이 쉽게 보이지 않은 듯하다. 뉴스닷컴은 호주 팬들이 “그들을 대표팀에서 제명해야 한다”거나 “선수들이 메시와 사진을 찍을 궁리를 했다”는 사실에 화가 난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메시와 같은 전설을 볼 기회가 흔한 것이 아니다”라며 “나중에 이 선수들이 자신의 자녀, 손자들에게 자랑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선수들을 감싸는 여론도 있다는 것이다. 또 “누구라도 저 상황에서는 메시와 함께 사진을 찍고 싶어할 것”이라며 “아니라고 한다면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는 의견도 나왔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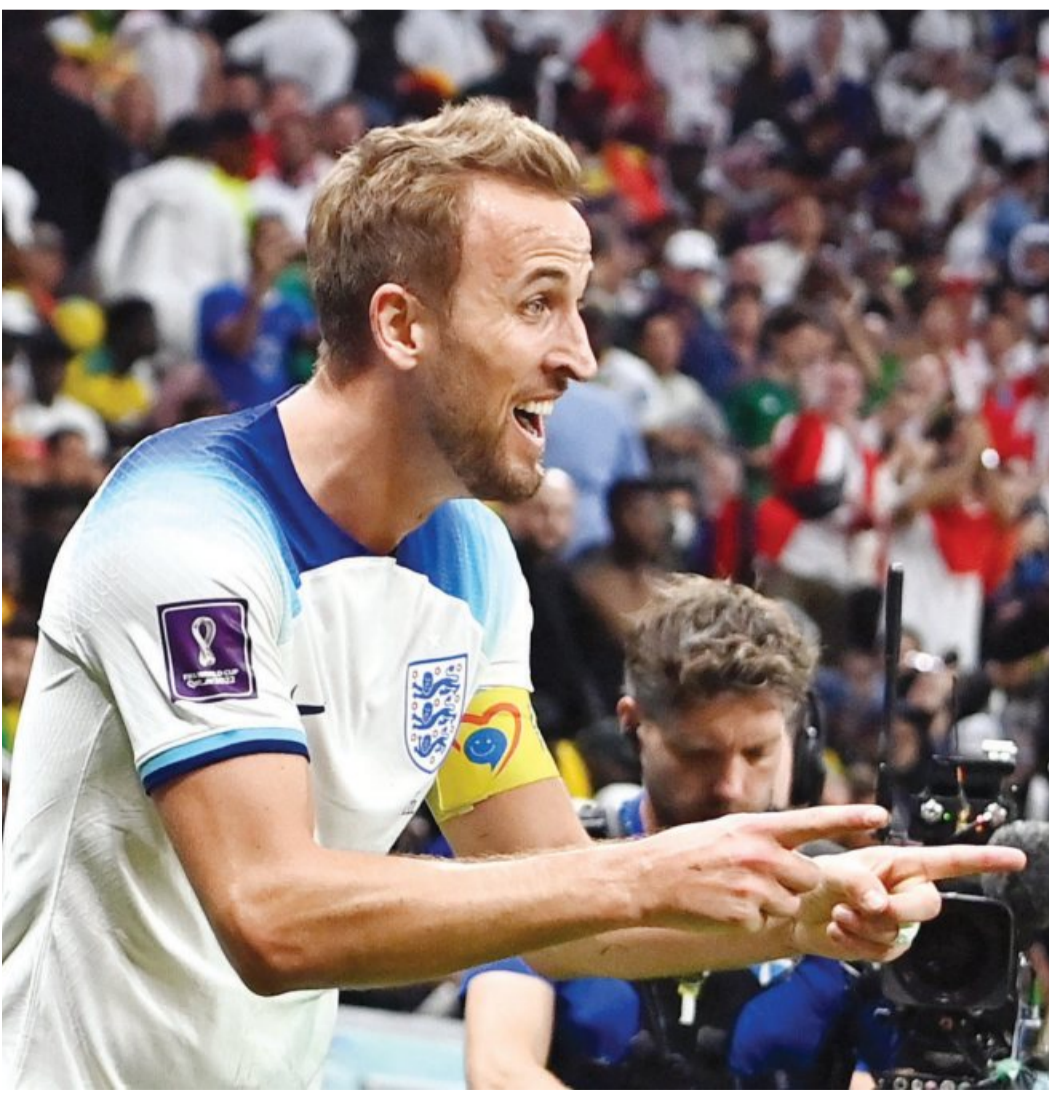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 34세 폴란드 레반도프스키 “내 월드컵은 끝나지 않았다”

폴란드 축구대표팀의 ‘살아있는 레전드’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34·FC바르셀로나)가 2026 북중미 월드컵 출전 가능성을 내비쳤다. 레반도프스키는 5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알 수마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에서 프랑스에 1-3으로 패배한 뒤 공동취재구역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 출전 여부에 관한 질문에 “신체적으로는 문제없다. 차기 월드컵 출전이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관리해야 할 것이 매우 많다. 불확실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답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1988년생인 레반도프스키는 4년 뒤면 만 38세가 된다. 많은 매체는 이번 대회를 레반도프스키의 마지막 월드컵 무대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지만, 그는 쉽게 ‘월드컵 은퇴’ 선언을 하지 않았다. 월드컵에 맺힌 한이 많은 듯, “두렵지 않다”는 말로 차기 월드컵 출전 의지를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사실 레반도프스키는 유독 월드컵과 인연이 없었다. 그는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에서 7번이나 득점왕에 오르며 국제축구연맹(FIFA) 최우수 선수상을 2번이나 차지한 세계적인 공격수지만, 20대 때 한 번도 월드컵 무대를 밟지 못했다. 폴란드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유럽 예선의 높은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레반도프스키는 만발치에서 무대를 바라봐야 했다. 폴란드는 2018 러시아 월드컵을 통해 본선 무대에 복귀했고, 레반도프스키는 만 30세 때 뒤늦은 월드컵 데뷔전을 치렀다. 그러나 레반도프스키는 조별리그 3경기에서 단 한 골도 넣지 못하고 탈락의 쓴맛을 봤다. 폴란드는 사우디아라비아전 승리를 발판 삼아 1986년 멕시코 대회 이후 36년 만에 16강 무대에 진출했다. 그러나 폴란드는 이날 우승 후보 프랑스를 넘지 못하고 ‘카타르 여정’을 마쳤다. /연합뉴스

# 잉글랜드 케인 득점포 가동 ... “계 섰거라 음바페”



잉글랜드 축구 국가대표팀의 주장 해리 케인이 5일 카타르 알코르의 알바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전 세네갈과의 경기에서 팀의 두 번째 골을 넣고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세네갈에 3-0 승리 이끌어

후배들의 득점을 돕는데 주력하던 ‘잉글랜드의 왕’ 해리 케인(29·토트넘)이 드디어 득점포를 가동했다. 케인은 5일(한국시간) 카타르 알코르의 알바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세네갈과의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에서 전반 막판 추가골을 터뜨리며 잉글랜드의 3-0 승리에 힘을 보탤었다. 선발 출격한 케인은 앞선 조별리그 3경기에서처럼 도움이나 연계에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전반 38분 조던 헨더슨(리버풀)의 선제골이 터지자 케인은 본격적으로 스트라이커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전반 41분 시도한 첫 슈팅은 골대 위로 뚝이나 두 번째 시도에서는 실수가 없었다. 케인은 전반 48분 역습 상황에서 필 포든(맨체스터 시티)이 왼쪽에서 넘겨준 공을 정확한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해 세네갈 골망을 흔들었다. 4경기 만에 터져 나온 케인의 대회 첫 득점이었다. 케인은 명실상부 잉글랜드 최고의 골잡이다. 다른 나라의 내로라하는 공격수들이 몰려드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3차례(2015-2016·2016-2017·2020-2021)나 득점왕에 올랐다. 케인은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6골을 넣으며 득점왕에 올랐다. 하지만 우승컵은 프랑스의 차지였다. 이 대회를 변곡점으로 케인의 플레이 스타일이 득점에만 집중하는 것에서 동료들의 득점 기회까지 창출해주는 쪽으로 바뀌었다는 평가가 많다.

4년 동안 플레이 스타일이 많이 바뀐 케인은, 이번 대회에서도 자신이 득점하기보다 어린 동료 공격수들을 살리는 플레이에 주력해왔다. 6-2 대승을 거둔 조별리그 1차전에서 팀의 3번째 래힘 스티링(첼시)의 골, 5번째 마커스 래시퍼드(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골을 케인이 도왔다. 웨일스와 3차전에서는 정확한 땅볼 크로스로 포든의 추가골을 도와 잉글랜드의 3-0 완승에 일조했다. 현재 이번 대회 도움 랭킹 1위에 올라있는 선수가 바로 케인이다. 그런 케인이 16강에 오르더니 득점포까지 가동했다. 케인은 또 월드컵에서 7골, 유럽선수권에서 4골을 넣어 두 대회 통산 11골을 기록, 게리 리네커가 보유한 잉글랜드 선수의 ‘메이저 대회(월드컵+유로) 합산 최다골 기록(10골)을 넘어섰다. 리네커는 월드컵 본선에서만 10골을 넣었다. 잉글랜드의 다음 상대는 이날 폴란드를 3-1로 완파하고 올라온 프랑스다. 케인이 음바페와 골잡이 대결에서 승리하고 잉글랜드를 4강에 올려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월드컵 16강전		
7일(수)	※한국시간 기준	
	모로코 vs 스페인 00:00	
	포르투갈 vs 스위스 04:00	

자료 : FIFA